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크 36選

난파선 인연이 화엄교학 발전으로

28. 중국불서 전래와 화엄 전성시대

18세기 이후에는 이력과정을 중심으로 강원에서 강학이 매우 활성화되었다. 특히 대교과에 속한 화엄의 강경과 교학 연구가 중시되었고, 화엄 및 이력과정 교재를 대상으로 한 강의노트가 주석서인 '사기(私記)'가 다수 저술되었다. 화엄학 유행의 계기가 된 것은 중국 불서의 우연한 전래였다. 1681년 전라도 입자도 앞바다에 풍랑으로 좌초한 중국 상선이 표착하였다. 배 안에는 사람이 없고 의문의 불서가 가득 실려 있었다. 그런데 이때 표류해 온 중국 배는 황벽관일체경(철안관) 판각을 위해 중국의 가흥대장경(가흥장) 간인본을 싣고 일본으로 가던 무역선이었다. 가흥장은 1589년부터 약 100년간에 걸쳐 인가된 대장경으로 판각 비용 마련을 위해 인쇄본을 판대하였다. 그 가운데 일본의 새로운 대장경 조성을 위해 수출되던 한 질의 가흥장본이 태풍을 만나 조선에 유입된 것이다.

표착선에 있던 1천여 권의 불서 중 일부는 지방관아에서 수습하여 조정에 올려 보냈다. 이 책들은 숙종의 명에 의해 다시 남한산성 개원사로 보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숙종은 불교에 해박한 승지 임상원에게 불서 가운데 《유마경》에 대해 설명해 보게 했지만 그가 고사하였다고 한다. 그 밖의 불서들은 전라도 인근 사찰에서 수습하여 보관하였는데, 부휴계의 적적인 송광사의 백암 성총(1631~1700)이 이를 다시 수집하였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낙안 징광사와 하동 쌍계사 등에서 197권 5천여 판을 판각하여 배보하였다. 성총은 그 간행 경위에 대해 중국 배에 실려 온 불서의 태반이 조정에 유입되었지만 능가사, 소요사, 선운사 등 여러 사찰에서 책을 구해 소장하였기에 자신이 그 가운데 400여 권을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가 간행한 불서는 모두 12종이었고 그 중 9종이 사교과의 《금강기》 《기신론기》, 대교과의 화엄 등 이력과정에 포함된 책들이었다. 또한 《정도보서》와 같은 염불 정도와 관련된 책도 직접 교감하고 주석을 붙여 간행하였다. 이는 당시 승려교육 및 삼문 수행체계가 정착되면서 이들 서책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진 현실을 반영한다.

그런데 성총이 이 가흥장 불서를 간행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중국 화엄종 4종인 당의 징광이 쓴 화엄학 주석서 《화엄소초》였다. 《화엄소초》는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징광의 주석서 《화엄소》와 그에 대해 징관 자신이 다시 상세하게 해설한 《연의초》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성총은 1682년 불갑사에서 가흥장본 합본 《화엄경소초》를 보고 1689년 징광사에서 각판을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그가 처음에 구한 《화엄경소초》는 80권의 완질이 아니었고 반 이상만 온전한 상태였다. 이에 묘향산 보현사를 비롯해 각지 사찰에서 나머지 162권을 구하여 1690년에 1차로 간행하였고, 1692년에 그것을 기념하는 대화엄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때의 간행본에도 여전히 일부 결락이 있어서 별도로 입수한 명의 역랑남장(원



지난 1월 9일 영축총림 통도사가 봉행한 '화엄산림 대법회' 회향식. 사진은 이 행사에 참가한 사부대중이 위패 소대봉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통도사

의초)를 참고하여 1700년 《화엄경소초》 합본 80자호를 완성하여 재차 간행하였다.

백암 성총이 간행한 《화엄경소초》는 송 이후 명대까지의 주석 및 교역 성과를 반영한 중국의 최신 교정본에 기초한 것이었다. 특히 징관 화엄교학의 결정판인 《연의초》는 당시 조선에서 쉽게 구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18세기 후반의 연담 유일은 "우리 동방에 청량 징관의 《화엄소초》가 이미 들어와 유통되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연의초》는 인멸되어 전하지 않아서 화엄강사들이 《화엄소》를 지남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백암 성총이 《화엄경소초》 합본 80권을 얻어 판각하고 유포시킨 후야 동방의 학자들이 《연의초》의 무애법문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입수된 가흥장에는 《연의초》 앞부분의 총론적인 헌답에 대해 원의 보자가 해설한 방대한 양의 주석서 《회현기》가 들어있었고 이 또한 성총에 의해 간행되었다. 이로써 조선 강학계에서 화엄교학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진척될 수 있었다.

화엄학의 대표 주석서 간행은 18세기 이후 강학의 활성화와 다수의 화엄사기 저술로 이어졌다. 바야흐로 화엄교학의 전성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화엄사기 및 과문의 작성은 청하계와 부휴계 등 계파를 막론하고 크게 유행하였다. 먼저 가흥장 불서를 간행했던 백암 성총이 속한 부휴계에 대해 《이조불교》에서는 '화엄의 범유'가 그 법맥을 통해 이어졌다고 평하였다. 부휴계에서는 모은 진언(1622~1703)이 가흥장 《화엄소초》의 유일 직후 화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화엄경칠차구회품목지도》를 지었다. 또한 그의 손제자 회암 정해는 《화엄경소초》를 저술하였고 그 자신은 중국 화엄종 5조 종림의 후신으로 추앙되었다. 한편 성총의 전법사지 무용 수언은 1688년 송광

중국 표착선에 실린 1천여 불서

화엄교학 전성시대 크게 기여

관련 판목 마멸될 정도로 인출

조선 사상계 접점에도 일익 담당

사로 성총을 찾아가 《화엄소초》를 전해 받았고 그 정수를 얻었다고 평해진다. 또 성총에게 화엄 원용의 뜻을 직접 전수받았다는 석실 명안은 '화엄법계품'을 판각한 바 있다. 특히 18세기 후반 부휴계의 적적인 목암 최눌은 화엄의 대의를 총괄한 '화엄품목'을 지었고 여러 경전의 요체를 정리한 《제경회요》를 찬술하였다.

청하계의 주류문과 편양파에서도 화엄 강학과 교학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다. 목암 최눌의 '불조종과도'에 소개된 편양파 주류 계보에는 모두 교학에 밝고 화엄강학으로 유명한 이들이었다. 먼저 월저 도안(1633~1715)은 조사인 편양 언기와 스승 풍담 의식의 유훈을 이어받아 《화엄경》에 대한 한글 음식 작업을 완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성총에 의해 간행된 《연의초》와 《회현기》에 근거해 한글로 장과 구절을 나누었다고 한다. 보현사에 주석했던 도안은 화엄의 대의를 강구하고 원교의 진수인 화엄 법계에 뜻을 두었으며, 승속 1천여 명을 모아 경전들을 간행하기도 했다. 한편 그가 대문사 화엄강회에 참여해 법석을 넘겨받고 종사로 추앙된 일은 편양파 주류가 대문사와 남방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도안의 동문이었던 상봉 정원도 《화엄경》 과문 4과 가운

데 일실된 3과의 누락부분을 교정해 《화엄일과》를 작성하였는데, 요지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평을 들었다.

화엄교학의 이해 심화와 사기 저술의 성행양상을 반영하여 18세기에는 대규모 화엄법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편양파 환성 지안(1664~1729)은 당대 화엄학의 일인자였던 모은 진언의 인정을 받았으며, 그의 강설은 성총이 간행한 《화엄소초》에 모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당시 지안의 명성은 그가 강의한 1725년 금산사 화엄대법회 때 1400여 명의 청중이 운집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몇 년 후인 1729년에 앞서의 법회 관계로 그는 무고를 당하여 옥에 갇혔고, 제주도로 유배간지 1주일 만에 병으로 입적하였다. 지안은 '산들이 사흘을 울고 바닷물이 솟구쳐 오른다'는 임종계를 남겼고, 저술로는 선종 5가의 특징을 약술한 《선문오종강요》가 전하고 있다. 도안의 문도 설암 추봉도 대문사 강회에서 《화엄강회록》을 남겼고, 그의 제자 상월 새봉이 1754년 선암사에서 연 화엄강회에는 1200여 명이 참가하여 크게 성황을 이루었다.

이들과 함께 편양파 교학전통을 대표하는 설파 상언, 연담 유일, 인악 의침에 의해 18세기 화엄교학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설파 상언(1701~1769)은 《화엄경》을 25회나 강설하였고 《화엄소초》의 불분명한 부분을 해인사 대장경본과 일일이 대조하여 살폈다고 한다. 그 결과 기존의 잘못된 곳을 정정하여 《구현기》 1권과 《화엄은과》를 남겼다. 상언이 쓴 화엄 '십지품'을 대상으로 한 사기에는 그의 제자가 찬한 것으로 보이는 발문이 적혀있다. 그에 의하면 "《화엄경》은 근거에 따른 설이 아닌 불성에 계합하는 지극한 설이다. 여러 경전 중에 가장 뛰어난 근본이며 그

가운데 '십지품'은 더욱 깊이가 있다. 이 사기를 쓴 설파장로는 근래의 화엄종주이며 교의 바다의 지남이다"고 평하였다. 또한 1770년 징광사에 붙이 나 성총이 간행했던 《화엄소초》의 판목이 불타자, 상언이 1775년에 이를 정밀히 교감하여 증간하였고 영각사에 경판각을 세워 보관하였다. 이후 이 영각사본은 목판이 마멸될 정도로 많이 인출되었다고 하며, 1855년 남호 영기가 봉은사에서 다시 복각하였다.

연담 유일(1720~1799)는 상언에게 수학한 이후 30여 년간 화엄 강학을 폈다. 그는 상언의 《화엄소초》 주석을 '조선 화엄과의 금과옥조'로 높이 평가하였고, 화엄학의 성행과 관련하여 징관, 종림을 칭송하였다. 유일는 화엄 헌담과 '십지품' 등에 대한 다량의 사기를 남겼는데 그의 화엄사기는 '유망기'라는 명칭으로 전해진다. 조선 후기 화엄교학의 성행양상은 유일이 주석했던 대문사의 강학전통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화엄강학을 매개로 한 12대 종사와 강사를 배출한 대문사의 교학전통은 법맥상 정허계 편양파와 소요파가 주축이 되어 형성하였다. 이들은 '서산유'를 내세워 해남 표충사를 지정받았고 대문사가 8도 선과 교의 종원임을 자부하였다. 이는 임제법통과 화엄종풍이 결합된 조선 후기 불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다. 한편 경상도에서 활동한 인악 의침(1746~1796)도 설파 상언에게 수학하였고 상언의 《화엄은과》에 의거해 《화엄소초》에 대한 사기를 썼다. 이들의 사기는 화엄교학 이해의 심화와 강학 전수로 크게 기여하였는데, 19세기 호남과 영남의 강원에서는 각각 유일과 의침의 사기가 중시되어 전해져왔다 한다. 후대에 화엄은 유일의 사기가 보다 자세하고 이력과정 사교과에 대한 주석은 의침의 사기가 더 좋다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다.

화엄학은 고려전기까지는 중국 화엄을 체계화시킨 지엄과 범장, 그리고 신라 의상계 화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고려 초의 균여가 그 대표적 계승자였다. 그러다가 송의 진수 정원과 교류한 의천 이후에는 징관의 화엄교학이 보다 중시되었다. 고려 후기 보조 지눌은 선교일치를 제창했던 당의 종림, 그리고 이통현의 실천적 화엄론의 영향을 받았다. 지눌 이후 조사선과 화엄의 공조 및 융합은 한국불교의 고유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조선전기에는 불교와 함께 화엄교학도 침체되었지만, 교종의 승과시험 과목에 《화엄경》이 들어가는 등 교학의 최고봉으로서의 위상은 최소한 유지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 이력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대교과에 화엄이 포함되었고, 선교겸수에 염불을 추가한 삼문체계의 정립으로, 간화선과 화엄이 양립하는 이중구조는 지속될 수 있었다. 더욱이 최선바전의 《화엄소초》가 간행,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18세기에는 화엄의 전성시대가 열렸고 그 중심에는 징관의 화엄학이 있었다. 일심을 매개로 화엄과 선을 연결시키려 했던 징관의 화엄교학은 화엄과 선의 이중주에 적합한 것이었고, 성리학이 주도한 당시 조선 사상계와의 접점을 찾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다.

한국 최초!! 내손 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손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일시 날으면 8640 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던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으로 만든 비술이다.

시간법도 각각 **년명(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육임은 대운법 뿐만 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 해 드립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육임이 보인다. 공넵 저 / 4×6배판 / 정가 70,000원
 ■ 강좌문의 : 공넵학당 010-4471-6410 ■ 구입문의 : 관음출판사 02-921-8434

무료 공개 강의 안내

안성재 박사

- 공개 강의 일자 :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 시 간 : 오후 2시 ~ 5시 (3시간)
- 강의장소 : 동방대학원 문화교육원 401호
- 내 용 : 학습진로상담사과정 안내 및 진학 관련 내용

강의 내용

- ➔ 1교시 : 진학과 관련된 이론 및 CAC프로그램 안내
- ➔ 2교시 : 생년월일에 의한 실전상담 2명 (학생, 성인)
- ➔ 3교시 : 설문 분석에 의한 진로, 적성 실전 상담 2명 (학생, 성인)

스님, 철학인이 알아야 할 내용. 방문하시어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학습진로상담사 신입생 모집 : 2016년 3월 4일 개강
- 강의 요일 : 매주 금요일
- 시 간 : 오후 2시 ~ 5시 (3시간) 15주 강의
- 수업료 : 30만원
- 진로, 직업에 관련이 있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서울 성북구 성북로 28길)
 지하철 4호선 한성대 6번 출구 / 2111, 2112버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정류장 하차 도보 200m
 문의전화 : 문화교육원 02-3668-9890, 강의교수 010-5418-5972